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80호 현대불교

29

2012년 3월 21일(음 2월 29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그저 죽든지 살든지 착 놓아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 분한테 "무슨 죄가 있으니까 기도드려라. 또 업이 많으니까 뭐가 안된다.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3일, 1주일, 100일 기도를 드려라, 정성을 들여라, 알마를 가져와서 천도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해 준다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냥 "알았다"라는 말대답 한마디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되 그것은 당신들하고 나하고 둘이 아닌 까닭에 그런 말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그런 의식 자체를 다 놔 버리고 죽결로 들어가서 죽행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목마를 때 즉시 맛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불교에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집어 들고 마셔서 진짜 맛을 보라. 그러면 쓴지 단지 알 수가 있다. 쓰고 달고 알았어야 내가 마음을 내서 움직여 줄 수가 있다 이거죠. 만약에 맛을 모르고 움직여 준다면 그냥 헛바퀴 돌아가는 거다 이거죠.

맛들에 물건도 넣지 않고서 맛돌질을 한다면 그냥 빈 맛돌만 돌아서 아무 소용이 없죠? 또 죽이 없어도 안 돌아가고요. 그러니 우리가 불법의 진의를 생활 속에서 꿰뚫어서 알고 맛을 보세요. 안되는 일도 되는 일이고 되는 일도 되는 일입니다. 진짜로 믿으신다면, 진짜로 맛을 아시는 분은 안되는 일이 없어요. 여기에도 맛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맛 보셨다면 우리가 말로 설명... 설명이라는 이름조차도 붙이지 마시라. 이 말 자체가 마음에서 스스로 우려 나와서 여러분과 같이 마음을 함께 하면서 그 에너지가 오고 가는 사이 없이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그 두터운 한마음, 그게 자비거든요. 자비라는 건 애정이나 사랑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든 없든 못났든 잘났든, 거지든 부자든 병자든 병자가 아니든, 또 벌레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소든 말이든 개든, 이런 걸 따지지 않는 게 자비죠.

예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어요. 이것은 강원도 어디에서 살았던 얘깁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서 살았습니다. 부처님한테 다니긴 해도 그 뜻은 잘 모르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이 자주 나가시진 않으셔도 불도를 숭상하면서 마음으로 연구를 잘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야! 공합은 봐 뭐 하니? 저희들끼리 좋다면

결혼시켜라. 서로 봐서 합의를 하면 그게 공합이 니라." "야! 이사를 하되 일요일같이 사람들이 많은 날, 비 안 오는 날 이런 날 하면 그것이 바로 좋은 날, 부처님이 돌보시는 날이란다." 이렇게 아주 유쾌하게 가르치시던 분이 고만 아들을 앞세우고 말았어요.

그러니 고만고만한 손자들하며 며느리하고 살다 보니까, 좀 살긴 했지만 농사를 짓는데 도저히 며느리 혼자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고 얼마 안 가서 고만 그 시아버지마저 가셨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참,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허망하니 어머니 하기 이전에, 울망졸망한 오 남매를 두고서 두 분이 다 가셨으니 나는 어떻게 살라나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말합니다. 죽을 때에 내가 이렇게 가서 그 농사일을, 애들 기르는 걸 도와 주지 못해서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하시고서

'결국은 너희 집의 소로 와야 내가 너희 집의 일을 도와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소가 새끼를 낳는데 시아버지가 소에게 뛰어들어서 다시 태어난 거죠. 그건 알고 뛰어들었으니까 누구의 길을 인도받고 안 받고 가 없어요. 그래, 소에게 뛰어들었으니까 소로 그려 가지고 나왔겠지요? 그분은 붓대를 쥐어도 아주 뛰어난 화공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유롭게 소가 되려면 소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 마음이 염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바깥으로 꼬달리면서 바깥으로 '나 좀 그렇게 해 주시오' 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부처님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성신한테다가 '야! 젊은 며느리 혼자 저 손자들을 기르고 살아야 하는데 어찌하겠나. 주인공! 내가 소로 그려 가지고 나와야겠어. 그래서 일을 봐 주어야겠어. 그리고

재네들 다 자라면 내가 또 다시 원점으로 가지.' 그렇게 안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소로 태어나서 점점 점점 잘 자라요. 그래서 중소로 딱 자라니까, 이 며느리가 큰 소까지 둘 수는 없거든요. 큰 소를 갖다 파니까 그 시아버지 송아지가 중소가 되어서, 어머니 소가 가니까 참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거든요. 내가 소 허물을 쓰고 나와서 소가 됐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어머니요, 그리운 건 그리운 거요, 보고 싶은 건 보고 싶은 거요, 또 과거생의 어머니, 인연되어 모여 살던 전생의 어머니도 그때는 그때대로 또 어머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닌 게 없죠. 그래서 이 소가 눈물을 주룩룩 흘리면서 사는데, 점점 자라나는 애들이 집 안을 오고 가는 것을 봐도 그 소는 눈물이 주룩룩 흐르는 거라. 결국은 손자들이죠. 며느리가 들어와서 소죽을 썰어서 퍼서 주어도,



그림 · 최주현

그 소죽을 열면 담벼서 먹으려고 안 하고 머리를 그 큰 눈으로, 속눈썹이 길다란 그 큰 눈으로 말이죠. 꿈벅꿈벅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가 오고 가는 것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아휴, 빨리 먹으라고 머느리가 그러면 그때서야 딱전 피우고 있다가 먹는 것처럼 먹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애들이 끌고 갈 때는 그저 자기 머느리 태우려고 네 무릎을 땅에 착 대고서 흔드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머느리 위하는 마음과 그 아픔을 어디다 다 말할 하겠소. 여복하면 소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겠소.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수없이 하면서 나날을 지내다 보니까, 애들은 다 자라서 서울로 가서 공부하게 됐고 지금은 교수로다가 지내고 다 이렇게 지냈지만... 그러니 머느리도 늙었다 말입니다. 소도 언제 늙었지요?

그러니까 어느 날 꿈에 그 소가, 시아버지가 왔다가 소가 왔다 하더니 그 소 속에서 시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나오더니 "야! 앉아 보라. 내가 지금 저 아무 데 암자에 살고 있느니라. 그런데 거기서도 살지만 내가 자식을 데리고 그렇게 고생할 걸 생각을 하고, 내가 이 모습을 가지고 또 나왔느니라. 나는 거기서 살면서도 여기 또 나왔느니라. 인제는 네 자식도 다 길렀고 그러니 나를 좇아서 내가 가는 길로 가지 않으려?" 하거든요. 꿈에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님, 저도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자식을 길러서 장가를 들여 놓으니까, 혼자서 농사지를 수도 없거니와 이제는 도저히 힘들고 의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아버님을 좇아가겠습니다." 하고 울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되기 전에 말입니다. 빼먹고 했지 뭐니까. 하하하. 저번에도 빼먹은 게 많았어요. 금방 말하다가 이리로 가고 금방 말하다가 저리로 가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길도 고정된 게 없거든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너무나 하려고 밭에 나갔다가 고만 뺨에 물려서 발목이 부었거든요. 걸음을 못 걸으니 방에 누워서 꿈공 앓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라. 그 애들, 울망졸망한 오 남매를 놔두고 남편이 죽자 시아버지도 죽고, 그런 거 생각할 사이도 없이 허우적거리면서 바쁘게 돌아쳤는데 '세상에 이렇게, 오늘날 혼자 이렇게 살다니...' 하교선 우는 거라. 그렇게 울고 있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 主人公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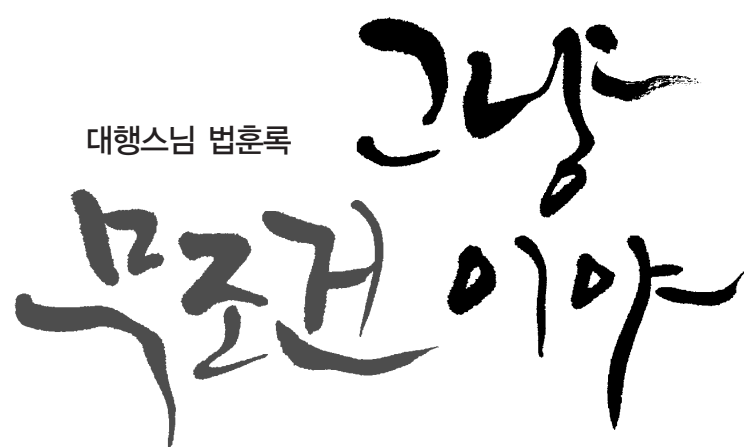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헌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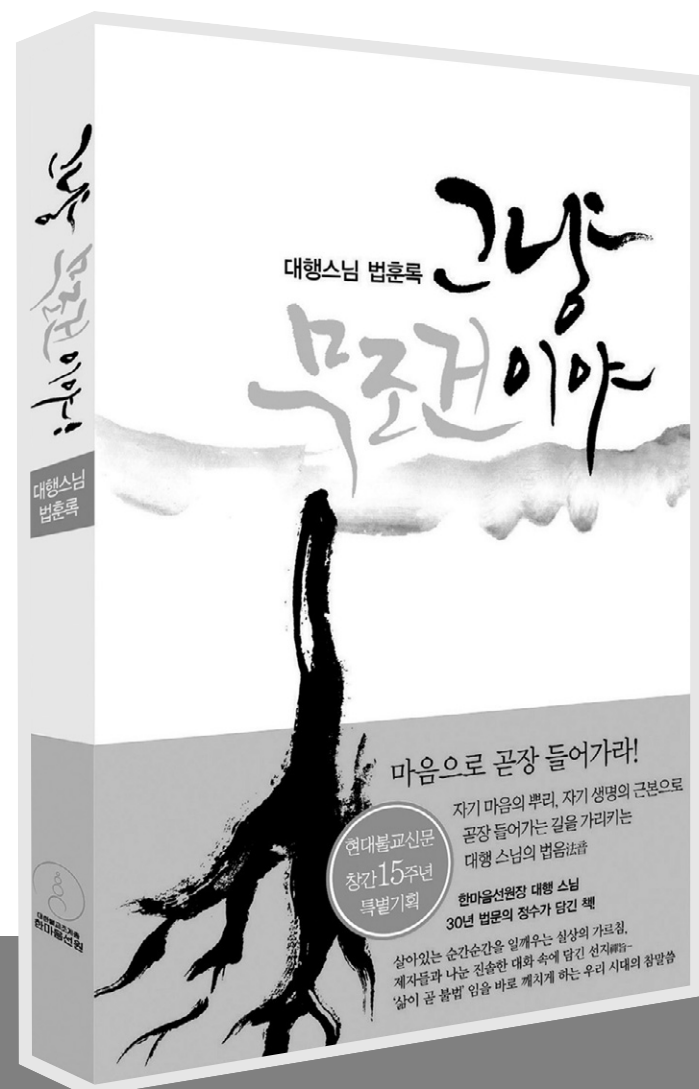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헌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현대불교신문 창간 15주년 특별기획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
30년 법문의 정수가 담긴 책
살아있는 순간순간을 일깨우는 참살이 가르침,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참말씀-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진짜배기 인생살이를 사세요

29면에서 계속

는데 마루를 뿔로 치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라. 누워 있다가는 뭘까 그리고 영금영금 기어서 문을 여니까, 소가 외양간에서 어떻게 풀고 나왔는지 나와서 쪼리로 마루를 치고 있는 거라. 쪼리를 마루 쪽으로 두고 내 다리를 꿰어앉아서 타라고 그 쪼리를 흔들거든요.

그런데 평소에도 그렇게 말을 잘 듣고 또 태워주고 그랬었지 '아, 나 타라고?' 하고선 목을 따르다가 매서는 그걸 붙들고 고삐를 쥐고 댔잖나. 타니까 어슬렁어슬렁 산골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 산골로 얼마를 들어갔는데 샘물이 쫙쫙 흘러서, 물이 쫙쫙 흘러 내려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쪽 엮으려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렸어요. 내렸더니 소가 아무 소리 없이 물 있는 데로 가서 한 발을 들여놨다 내놨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발을 들여놨다 내놨다 하는 거 보니까 내 발을 거기다 놓으라나 보다.' 하고 물에다 담겼어요. 그랬는데 얼마 안 가서 부기가 쑥 빠지고 발 담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이 소가 사흘을 태워 줘서 그렇게 담겼어요.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그 꿈을 꾸 거예요. 울다가 꿈을 딱 깨고 나서 소를 찾으러 맨발로 그냥 뛰어나가서 보니까 소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산다고 하는 절에 가 보니까 한 20세 좀 넘는 젊은 스님이 거기서 살고 있더라 이거죠. 시아버지를 꼭 담았어요. 점 있는 것까지 담았어요. 거기서 이 며느리가 그만 탄복을 한 거예요.

그때는 내가 치약산에 있을 때인데 절에 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걸로 인해서 인생이 어떤 건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 건지 짐작은 했습니다. 그러나 짐작했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묘하고 불가사의한 일이 있다는 거, 내가 이런 말 해도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이래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모 조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일체 만물만생 다, 조상이든 자식이든 부처든 어느 이름을 막론해 놓고 이 소용돌이 속에, 바로 나라고 세울 게 없는 공한 이 소용돌이 속에 모든 것을 착, 그저 죽든지 살든지 놓아 버릴 수 있어야지요.

놓으세요. 놓고 가세요. 맡겨 놓고 가세요. 잘된 거는 감사하게 맡겨 놓고, 안되는 것은 '응, 안되는 것은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믿고 놓으세요. 그 두 가지만 철저히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절대 없을 겁니다. 오늘 이만 하겠습니까는 여러분이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자1(남): 맡기는 거요, 두 가지만 하면 편

찮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크스님: 허허, 두 가지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도독질을 하고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인간이란 게, 욕, 질서, 교양, 충성, 효도 이런 거는 다 잘 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런 아주 전체하고 들어가죠. 그리고 불심도 돈독하고요. 그렇다면 도독질도 못할 거고 강도질도 못할 겁니다. 돈 주고 하래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을 믿고 전체하고 들어가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셔야 합니다. 안되는 거는 한번씩 뒤집으세요. '아! 주인공밖에 해결을 못하지.' 그리고 믿고, 믿고 거기다 맡겨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안

고라는 이름을 잘 요리해 해서 맛을 볼 수 있다면 그거는 아주 맛이 좋은 겁니다. 감사하고 말입니다.

지금 그냥 누구한테 맞아서 기어서 가도, 밥을 굶고 지금 기어간대도 '아이고!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다.' 하고 아마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러니 '고! 고! 고! 고!' 이겁니다. 업보가 많으니 죄가 많으니 이라고 난설하지 마세요. 어떤 안되는 일이 있어도 '아! 이거는 주인공밖에 해결 못하는구나.' 하고 믿고 놓으세요. 안되는 '이것도 되는 거지, 뭐.' 하고 그냥 편안하게 놓으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쑥 한 찰나에 돌면서 그게 슬금슬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질문자1(남): 다른 게 지금은 거의 다 잘 되는 데요, 잡념 같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날까지 부처 되려고 애를 써 보지 않았어요. 또 중생이다 부처다 이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한테 내가 항상 말하지만 유마힐 거사가 부처님 당시에 같은 연배로서 같이 나섰어요. 그러니까 머리 깎았다고 부처가 되고 머리 안 깎은 사람은 부처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부처님도 나섰고 유마힐 거사도 나섰어요. 병을 앓으시던 유마힐 거사가 병문안을 온 사람더러 "중생들이 나아 야 내가 낫지 않나." 이랬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통이 속에 지금 수십억 마리의 중생들을 끼고 다니니 그 중생들이 나아 야 내가 낫지, 안 그런갑? 세포를 타고 지금 중생들이 얼마나 돌아다니는 데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말이예요.

그런데 한생각은 선장이예요. 여러분의 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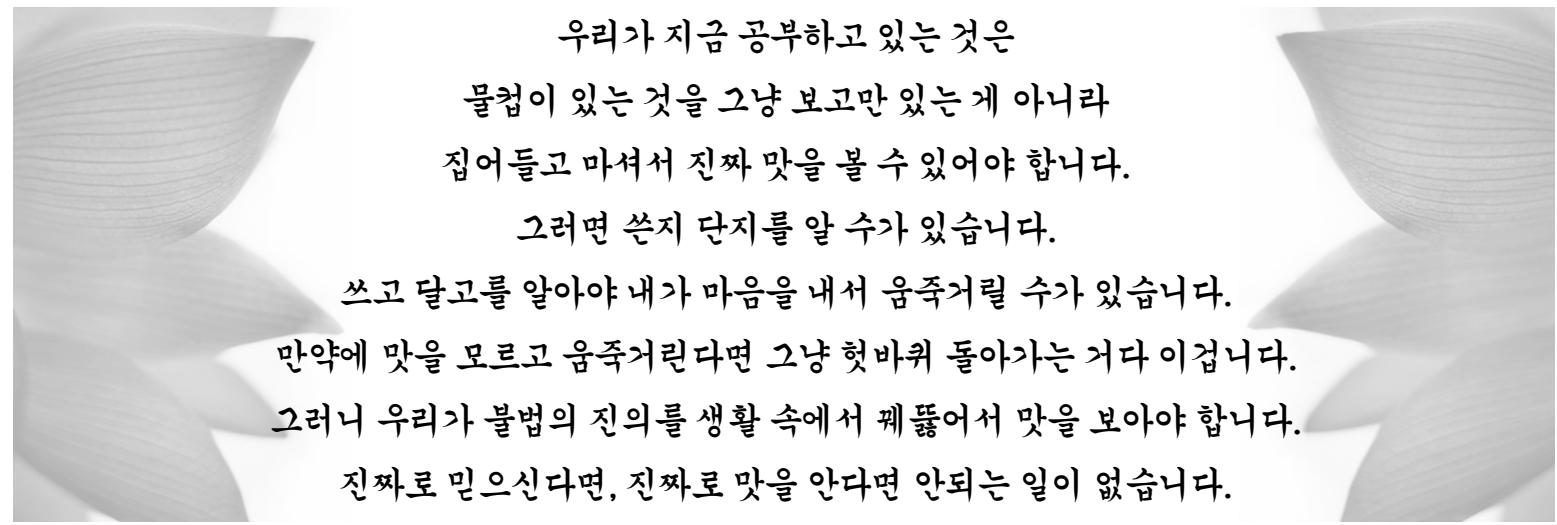
기를 원하거든요. 형제간에요. 불교 믿는 사람은 불교식으로 하자, 또 성당에 다니는 분들은 성당식으로 하자, 교회 다니시는 분은 교회식으로 하자,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스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요,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크스님: 이제 봐요. 아이고 참, 저이들은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까? 형제가 오 형제든 팔 형제든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를 믿고 이 사람은 가톨릭교를 믿고 이 사람은 불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다니니까 여기 식으로다가 하자, 또 나는 여기 다니니까 여기 식으로 하자 하고 세 사람이 나누고 싸웠어요. 그럴 때 나는 이렇게 말을 해 주었지요. "누가 제일 큰형이냐?"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이 제일 큰형이래요. 그런데 어떤 형제들은 기독교 믿는 사람, 또 천주교 믿는 사람이 큰형이라고 그럴 때도 있겠지요. 그러면 "큰형이 불교를 믿으니까 불교 의식을 따라라. 따르라. 이 건 이름에 불과하고 형식에 불과한 건데 당신네들, 이 지구가 둑이려면 둑 안에 같이 들어서 오물오물하면서 왜 이렇게 따지길 좋아해?" 내가 그랬지요. 그렇잖아요?

기독교다 불교다 이런 이름이예요. 진리는, 평등 진리는 하나고 마음먹기에 달렸다고요. 거기에 마음이 걸리면 손해를 보고 걸리지 않으면 아주 이익을 보고 그래요. 그리고 남 편안하게 해 주고 남 편안하면 나도 편안한 거예요. 남을 편안치 않게 해 주면 나까지 편안치 않아요. 나는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하기 싫어요. 귀찮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인식들을 그렇게 갖는다면 끝간 데 없이 그렇게, 자식들까지 그렇게 내려갈 테니까 그게 난 싫다구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대로 사는 것뿐이죠.

큰형이 가톨릭교라면 가톨릭교 의식으로 따라 이거죠. 또 큰형이 아니고 동생이 바둑바둑 우기고 온통 그냥 고집을 세우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동생 따라 줘요. 하하하... 기독교든 불교든 가톨릭교든 상관이 없어요.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그네들 마음 편안하게 해 주면 내 마음도 편안하고, 그것이 돌이던가, 네? 돌이예요? 하나지. 그 하나 마저도 없어요. 그런데 왜들 그렇게 불교고 그 남 그렇게 해야 돼요? 부모 제사날 형제들이 네가 더 됐으니 내가 더 됐으니, 이렇게 하느니 저렇게 하느니 그리고 싸워 봐요. 생시에 부모 애틍히 놓고 상 차려다 놓고 싸우는 거나 똑같아요. 그럼 그 법만 내놔요? 좀 넓게 생각하라고요.

* 위 법문은 1988년 3월 4일 국내지원위원회에서 설립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되는 것도 되는 거니까 걱정이 없습니까. 안 되면 여러분은 방향하죠? 그런데 안 되는 것도 고정되지 않았거든요. 되는 것도 고정되지 않고 안되는 것도 고정되지 않아요. 그러니 안 된다고 하더라도 되는 거죠. 금방 돌아올 테니까요. 그러니 온전수 노릇을 잘해야 돼요. 또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 놓고 갈 때 참 감사하죠. 그게 됐을 때 참 감사하죠. '참 감사하다.' 하고 또 감사하게 놓고요.

그런데 고정멸도(苦集滅道) 사제법에 이런 게 있죠. 고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살림살이하는 데에 모두가 고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고가 아닙니다. 인간은 부처가 될 수 있게끔 고등 동물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거쳐야 벗어나죠. 그래 '사람 되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렵고 부처 되기 어렵더라.' 이런 게 있죠. 그러나 사람이 됐으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은 내 주인공이 나를 성숙하게끔 동글게 이끌어 주는 과정이요구나.' 하는 걸 믿고 놓을 때 감사하지 않을 까요? 그리고 그때는 집도 없고 멀도 없고 도도 없을 겁니다. 고에서 그냥 타파를 해 버렸기 때문에요. 고라는 이름에 꼬달리지 마세요. 우리가

크스님: 그 잡념도 누가 내는 겁니까? 만약에 그런 잡념이 아니었다면 부처님이 될 수가 없단 말이예요. 성장할 수가 없지요. 그 잡념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다고요. 그걸 잡념이라고 또 거기 걸리지 말라고요. 잡념은 바로 성숙되는 과정이예요.

질문자1(남): 이 잡념은 밖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크스님: 바깥에서 오는 것도 안에서 나는 것도, 보고 들었으니까 오관을 통해서 들이지 않겠소? 잡념도 나한테 들어오죠? 또 안에서 나는 것도 있고, 보고 잡념이 오는 것도 있고 내 생활 과정에서 오는 것도 있고 모든 것들이고, 그것도 그놈이 하는 거니까 그놈한테다가 그냥 이렇지 열 아시죠? 그냥 거기다 맡겨 놔 버려요. '네놈 알아서 해라.' 하고 맡겨 놔요.

질문자1(남): 알아서 하라고 맡겨 놓으면 또 잡념이 일어나거든요.

크스님: 맡겨 놔도 잡념이 난다는 것조차도 놓으세요. 그리고 '빨리 하겠다. 빨리 공부하겠다. 왜 이렇게 더더? 내가 왜 이렇게 안되지?' 그런 생각이 나도 그것조차도 놓으세요. 나는

이라고요. 선장이 그렇게 한마음으로 놓고 가질 않는다면 어떻게 한마음으로 회전을 해 줘요? 안에서 한마음으로 되어야 내 몸도 건강할 거고 바깥의 경계도 한마음으로 돌아가서, 돌이 아니게 나투어 오고 감이 없이 에너지가 오고 가니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이 총만하게 항상 들고 나더라 이거죠. 그러니 안되는 게 있겠어요?

그리고 이 마음공부 하는 데, 물론 사는 데도 오밀조밀하게 깨끗하게 치워놓고 살고 또 사랑 하면서...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을 알아라 이거죠. 육으로만 왔다 갔다 한 다음 그게 사랑이 아니예요. 진짜배기 인생살이를 알아라 이거죠. 삶의 고달픔보다도 삶의 보람을 말합니다. 그래도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질문자1(남): 됐습니다.

질문자2(여):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님, 님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형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상을 당해서 초상을 치를 때 그 절차를 각자 자기 종교 의식대로 하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아름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복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돌이 80°C 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작용시 백색(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수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속땀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땀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땀과 함께 열기를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속땀(최고60°C)보다 높은 고열(80°C 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백색(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임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정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농협 053-12-125418 강현명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심전조계, 요추배개등 지매포터당)

NEW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향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끈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사위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 27,000원 (무로배송)

현대불교 현물샵 T.02)2004-8216 / F.02)737-0696
[농협 053-01-269062] 국민은행 343601-04-04676 예금주 : (주)현대불교선물사